



금호타이어, 서울시와 4년째 탄소상쇄 숲 조성 금호타이어가 서울시와 손잡고 '금호타이어 탄소 상쇄 숲' 조성에 나섰다. 금호타이어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고 서대문구 주관으로 지난 6일 서울 홍은동 북한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호 금호타이어 경영기획본부장(오른쪽 두번째)과 안재성 금호타이어 경영지원담당 상무(오른쪽 첫번째)이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동서식품, 동서문학상 수상자와 세계한글작가대회 참관 동서식품은 제 14회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의 부대 행사로 수상자들과 함께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회 세계한글작가대회'를 참관했다고 7일 밝혔다. 동서문학상을 통해 등단한 후 활발한 문학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 수상자들은 멘토의 자격으로 올해 수상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선후배가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동서식품



롯데제과, 빼빼로데이 앞두고 나눔활동 롯데제과가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맞아 사회복지단체에 제품을 기부하며 활발한 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롯데제과는 지난 5일 '대한적십자사'에 과자 1170 박스, 6일 '사랑의열매'에 과자 4700 박스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롯데제과가 기부한 제품은 전국 어린이, 청소년 관련 사회 복지시설로 전달된다. /롯데제과



롯데주류 '처음처럼 2호 숲' 식수식 진행 롯데주류가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약 3300㎡(약 1000평)에 처음처럼 2호 숲을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처음처럼 2호 숲 조성을 위해 지난 6일 이종훈 롯데주류 대표이사, 조주형 문화조경사업처장, 김형수 트리플래닛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 식수식을 진행했다. /롯데주류



BNK캐피탈,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개소 BNK캐피탈은 지난 6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BNK캐피탈 카자흐스탄 법인 사무실에서 'BNK캐피탈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개소식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왼쪽 두번째부터) 카자흐스탄 한인회 조성관 회장, BNK캐피탈 이두호 대표, 카자흐스탄 알마티 총영사관 전승민 총영사, BNK캐피탈 조현준 상임감사위원, 박병수 카자흐스탄 법인장. /BNK캐피탈

재수가 없어지는 비결?



진성오 소장의
심리카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세상 모든 것은 운에 좌우된다는 의미로 기승전결이 아닌 '기승전운(運)'이라는 말이 자주 떠오른다. 주변이나 필자가 만난 사람들 중 성공하기 싫고 돈 많이 벌기 싫고 혹은 사랑받기 싫은 사람이 없었다. 간혹 싫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런 일이 자신에게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신념(?) 같은 것 때문일 뿐, 성공이 정말 싫다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연구하다가, 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운 또는 재수가 없어지는 방법 아닌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역설적이지만 재수가 좋아지기 위해 없어지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재수나 운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다. 그들은 어떤 것에 대해 일종의 욕심이 생긴다. 이런 욕심은 자아의 특성 중의 하나이며 자아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진화시킨 중요한 생존 기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이 생기면 자아는 그 대상을 중요한 어떤 것으로 분류한다. 그 순간 그 중요한 대상에 대해 꼭 갖거나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소유욕이 발생한다.

이 소유욕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소유욕으로 인해 그 대상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면서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발생한다. 그래서 재수 없는 사람들은 집착이 발생하면 그 대상에 대해 일종의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애를 쓰는 단계로 들어간다. 애를 쓴다는 것은 어떤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 힘을 쓰는 것과 같다. 힘을 쓴다는 것은 경직되는 것이고 경직은 단단함을 만들고 단단함은 주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 그 순간 더 경직되고 더 힘을 주고 그래서 바로 가장 두려워하는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눈발에 미끄러졌을 때 다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몸에 힘을 빼고 모든 것을 흐름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재수없는 사람들은 살아보기 위해 팔을 내민거나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힘을 준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 순간만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신이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

은 더 경직되고 융통성이 떨어지게하여 주변도 재수없게 만들게 된다.

이런 흐름을 한발 뒤에서 보면 결국 재수가 없어지는 것은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삶은 멀리서 보면 하나의 희극이며 가까이서 보면 하나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다. 이 격언은 그대로 우리에게 운을 부르고 재수 없는 상태에서 재수가 있는 상태로 바꾸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비극처럼 보이면 멀어지는 현명함이 너무 멀어져서 삶이 희극으로만 진지함을 잃을 때는 다가가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공자님은 그것을 중용 혹은 시중이라고 하셨던 듯하다. 삶의 중용이란 우리가 너무 귀하고 중하다고 여겨 집착을 할 때는 멀리 떠나서 봐야하며 너무 멀어 공염불을 하고 초탈한 듯 하여 무관한 듯 허무할 때 다시 다가가서 작은 것에 집중하고 애착하는 능력이 아닐까?

결국 재수가 없어지는 비결이란 집착과 경직됨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운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운이 너무 매달리면 재수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 우리 모두 릴렉스 하자!

/당신의마음연구소장

예보, 카자흐스탄 보험금지급시스템 컨설팅

현지 KDIF 대상 보고회 개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예금자보호기금(KDIF)을 대상으로 '보험금지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ISMP)'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6월부터 컨설팅 사업을 실시해 KDIF 현황분석 및 요구사항 수렴, 목표모델 설계 등을 거쳐 'KDIF 맞춤형 보험금지급 시스템 설계안'을 보고회에서 발표했다.

이형표 예보 정보시스템실장은 "이번 컨설팅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기반으로 실제 시스템 구축사업이 전개돼 KDIF가 카자흐스탄의 예금자보호서비스 강화를 위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브드라흐마노프 누를란 KDIF 사장



이형표 예금보험공사 정보시스템실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 공사 직원과 카자흐스탄 예금자보호기구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은 "이번 컨설팅 사업으로 설계된 선진적 목표모델을 향후 정보시스템 구축 시 활용 예정"이라며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보는 컨설팅 사업 완료 이후 KDIF가 향후 실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인사

- ◆**통계청** ◇ 3급 승진 △ 산업동향과장 어운선 ◇ 4급 승진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철주 △ 행정자료관리과 박진호 △ 경제통계기획과 김희중
- ◆**농림축산식품부** ◇ 신규 임용 △ 정책보좌관 황인기
- ◆**글로벌이코노믹** △ 산업부장 겸 편집국장 대우 김민구 △ 편집위원 김영민
- ◆**한국서부발전** ◇ 처장(갑) △ 신재생사업처장 장광규 △ 신재생사업처 실장(동두천드림파워 파견) 한상문 △ 관리처장 정태호 △ 관리자 노무복지부장 윤승철 △ 발전운영처장 최용범 △ 건설처장 김영남 △ 태안발전본부 연소환경실장 박상용 △ 태안발전본부 제2발전처장 박현철 △ 평택발전본부 복합발전실장 이순상 △ 처장(을) △ 감사실 감사전략부장 김성도 △ 국정과제추진실 홍보부장 이세문 △ 해외사업처 사업개발부장 이흥택 △ 신재생사업처 신에너지사업부장 문제중 △ 기획처 미래대용전략실장 김중훈 △ 관리자 총무부

- 장 승승남 △ 발전운영처 연료조달실장 강세훈 △ 발전기술처 4차산업총괄부장 이상용 △ 건설처 기전부장 이희의 △ 안전품질처 재난안전부장 김향기 △ 태안발전본부 부장(세남노이 수력 SPC 파견) 박준석 △ 태안발전본부 환경설비부장 강정구 △ 태안발전본부 IG기계부장 김재식 △ 태안발전본부 건설관리실장 이건우 ◇ 부장(2직급) △ 감사실 총괄감사부 차장 장승준 △ 기획처 성과관리부 차장 정래현 △ 관리자 계약자재부 차장 정연신 △ 보안처 ICT총괄부 차장 이운재 △ 태안발전본부 대외협력처 계약부 차장 이양희 △ 태안발전본부 대외협력처 경영지원실 총무부 차장 송광석 △ 태안발전본부 제3발전처 계속제어부 차장 권오정 △ 해외사업처 O&M사업부 차장 황계한 △ 기획처 예산자금부 차장 김기수 △ 발전운영처 발전운영실 차장 김일식 △ 발전운영처 발전계획부 차장 박주일 △ 발전기술처 사내벤처팀장 노대인 △ 건설처 부장(신규사업담당) 김명목 △ 태안발전본부 차장(세남노이 수력 SPC 파견) 강지현 △ 태안발전본부 IGCC발전처 전기부 차장 김영철

- △ 태안발전본부 제2발전처 터빈부 차장 왕민석 △ 태안발전본부 제3발전처 계속제어부 차장 오승환 △ 태안발전본부 건설관리실 기전부 차장 유재철 △ 평택발전본부 기력발전부 차장 조인식 △ 군산발전본부 기계부 차장 오승철 △ 발전기술처 연구개발부 차장 김용택 △ 태안발전본부 IGCC발전처 공정안전부 차장 김대성 △ 보안처 정보보안부 차장 조현 △ 국정과제추진실 사회공헌부 차장 형남환 △ 안전품질처 재난안전부 차장 신상철 ◇ 책임기술전문원(2직급) △ 서부발전연구소 선임기술전문원 황영하

부음

- ▲ 남금순씨 별세, 이만옥(전 인천금융고등학교 교사)·이용연(임시컨설턴트)씨 모친상, 이만기(유웨이중앙교육 상무)씨 장모상, 이다비(조선비즈 기자)씨 외조모상 = 7일, 인천 가천대길병원 장례식장 302호, 발인 9일 오전 6시 ☎ 032-460-9405